오늘은 축제의 날, 매일이 부처님오신날 같아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5월 20일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의 연등법회 및 어울림마당을 봉행했다.



5월 20일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 연등법회.













▶C12면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5월 20일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의 연등법회를 봉행했다.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올해 연등회는 차별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겠다는 서원을 담아내는 법석으로 진행됐다. 연등회의 시작을 알리는 어울림마당은 어린이, 청소년과 연희단의 율동 발표로 꾸며졌다. 연희단은 흥겨운 율동으로 축제의 흥을 돋웠고, 참석대중은 환호로 화답했다.

행렬등 경연대회 시상식도 진행됐다. 연등지혜상은 한마음선원의 '봄을 품은 염주등'이 수상했으며, 연등선정상은 수국사와 삼천사가 받았다. 연등인욕상은 승가사 · 석불사 · 도선사 · 화계사 · 금륜사 · 삼성암 · 구룡사 · 충정사가 수상했으며, 연등지계상은 불광사 · 봉은사 · 진각종 · 옥천암 · 파라미타 · 총지종 · 법안정사 부부불자회에게 돌아갔다.

이어진 연등법회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전쟁을 극복하고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법석이었다. 법회에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이자 연등회보존위원장인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윤재웅 동국대 총장 등 사부대중 3만여 명이 참석했다.

불기 2567년 연등회 연등행렬의 대미는 대동한마당이 장식했다. 5월 20일 오후 9시 30분 종각사거리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대동한마당은 시민과 불자, 내국인과 외국인, 남녀노소를 넘어 하나가 되는 화합의 법석이었다.

마스크를 벗은 사부대중은 흥겨운 찬불가와 트로트, 댄스음악에 몸을 맡겼다. 또한 대중은 서로 손을 맞잡고 쏟아지는 꽃비 아래 강강술래를 하며 서로가 하나됨을 느꼈다.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사단법인 불교 정중종

일죽 망이산성 연 등 사

주지 도 심

- 사회부장
- 안성경찰서 경승회 감사
- 안성불교사암연합회 부회장
- (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일붕문도중앙회 수석부회장
-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
- 최고위과정 생활풍수CEO총동문회 회장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8-37(화봉리 69-1)
TEL (031)674-5765 | FAX (031)674-5769 | Mobile. 010-3714-9351